

# 한국원자력학회 제29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 인적사항



성명	김 명 현 (金明顯)
소속	경희대학교
직위	정교수

##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M. I. T.	Nuclear Eng.	Ph.D.	1988

##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1983 - 1984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연구
1988 - 현재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교육
2004 - 2008	경희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대학 행정
2008 - 현재	경희대학교 원자로센터	센터장	행정, 교육
2011 - 2012	Argonne National Lab.	방문연구원	연구

## □ 활동 내역

###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1992.11 - 2006.12	한국에너지공학회	편집위원
1997.4 - 2007.8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위원
2003.9 - 2008.8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이사
2009.9 - 2011.8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2012.9 - 2013.8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1.4 - 2014.12	KBS-TV	객원해설위원
2013.1 - 2014.12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추진위원회	위원
2014.10 -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기준위원회	분과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후보자이지만, 누구보다도 학회를 사랑하고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 이사진을 거치고, 학술부분 부회장까지 하면서 학회의 구석구석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명망가로서 외교형인 학회장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안과 밖의 살림을 개선하고 막힌 곳을 풀어주는 일꾼으로서의 내치형 학회장도 필요합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운 성격이라서 학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망설임이 적지 않았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잘 읽고 꼼꼼히 학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기획가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로/VHTR/SMART/Pyro/핵융합의 복합적인 이해 총돌 하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의 장기적 비전이 불투명합니다. 연구로/PWR의 경쟁적인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고립되지 않을 국제 협력 전략이 필요합니다. Post-Fukushima의 국면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원자력의 중심이 옮겨진 상황에서 대전의 역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은 원자력학회 회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하에 한국원자력학회의 발전 기초를 “만남”과 “전문화”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 개방적 만남이 학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연구부회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화된 토론의 장이 열릴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만남은 먼저 우리끼리의 만남에서 시작해서 나아가 여러 이해 집단과의 만남으로 확대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전문화는 현재의 연구부회 간 융복합이 이루어 지는 이슈별 전문가 활동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학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아래의 3단계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 계승

- 학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임 회장님들과 현 수석부회장의 업적과 노고가 지워지지 않도록, 또 운영 방향이 크게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 온 전통과 제도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여러 위원회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개선

- 기존의 학회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상제도 단순화, 청년지부/지역지부의 활성화, 학회지의 SCI 진입 전략 수정, 등)

■ 변혁

- 학회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개혁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연구부회 간의 벽을 허물고 이슈별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함,  
춘추계 학술발표회의 국제화, 연구부회별 별도의 학술발표회 개최, 등)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4. 29.

성명 : 김 명 현

(서명)